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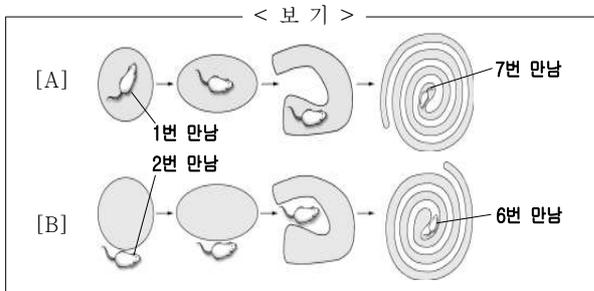
언어 영역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아펠레스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1점]

- ①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 ② 자신이 세운 원칙을 쉽게 어기는 사람
- ③ 남의 잘못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
- ④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
- 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끼어드는 사람

2. (물음) 다음 중 쥐가 미로를 빠져 나올 수 있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3. (물음) 남학생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하는 것을 직접 말하지 말고 돌려 말했어야 했다는 거구나.
- ②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지 파악했어야 했다는 거구나.
- ③ 상대방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밝혔어야 했다는 거구나.
- ④ 의미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담아서 표현했어야 했다는 거구나.
- ⑤ 상대방이 내 말을 꼭 들어줘야만 하는 이유를 적었어야 했다는 거구나.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4. (물음) 토론에서 단계별 조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한 사람은?

단계	조건	발언자
입론	문제 제기를 통한 입장 표명	찬성 측 토론자 반대 측 토론자... ①
반론	상대방 입론의 근거에 대한 반대 의견 제기	반대 측 토론자... ② 찬성 측 토론자... ③
최종 변론	주장에 대한 재강조	반대 측 토론자... ④ 찬성 측 토론자... ⑤

5. (물음) 두 토론자들이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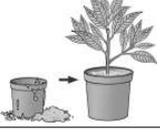
- ① 트위터는 선거운동의 필수적인 수단이다.
- ② 트위터를 통해 올려진 정보는 부정확하다.
- ③ 트위터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독려한다.
- ④ 트위터를 통해 정보는 빠르게 퍼져 나간다.
- ⑤ 트위터는 비교적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된다.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언어 영역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학습 방법 및 태도'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관상식물, 이렇게 관리하세요.>	
	물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적당히 주는 것이 좋아요. ㉠
	식물의 종류에 따라 햇빛을 조절해주세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
	식물이 성장하면 더 큰 화분에 옮겨 심어야 해요. 그냥 두면 화분 크기만 큼만 자란답니다. ㉢
	식물이 잘 자라지 않으면 뿌리를 확인해 보세요. 뿌리가 튼튼해야 식물이 잘 자란답니다. ㉣
	식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자주 불러 주면,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

- ① ㉠ : 자신에게 맞는 적당한 학습량을 정해 학습하는 것이 좋다.
- ② ㉡ : 학습할 과목과 그 내용에 따라 학습 방법을 달리 정해야 한다.
- ③ ㉢ : 학습 성과에 도달했다면 그보다 높은 단계의 학습을 해야 한다.
- ④ ㉣ :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 실력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 ⑤ ㉤ : 학습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학습 자체를 즐기려 노력해야 한다.

7. '고속도로의 저탄소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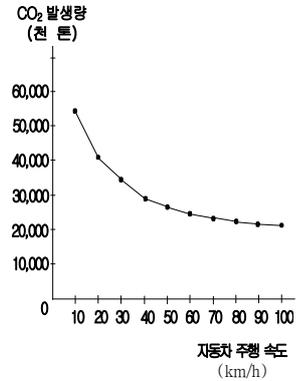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교통 분야 중에서도 도로 교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서 도로 교통 분야에서 발생하는 CO₂의 양이 많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 ○○신문, 2010년 10월 ○일 -

(나)

[A] 고속도로 속도 변화에 따른 CO₂ 발생량 [B] 고속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에 따른 대기오염 절감 편익

CO₂ 발생량 (천 톤)



자동차 주행 속도 (km/h)

(단위: 억 원)

구분	대기오염 절감 편익
갓길 차로제	13.99
진입 차량 통제 제도	5.16
교통 정보 제공	0.20

- 갓길 차로제 : 갓길의 특정 구간을 차로로 이용하는 제도
- 진입 차량 통제 제도 : 요금소 차로 이용을 제한하여 고속도로 진입을 통제하는 제도

(다) 인터뷰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시켜 승용차의 통행량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용차 통행량은 크게 줄지 않았고,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차로가 줄어들어 고속도로의 지·정체 상황만 더 심각해졌습니다. 일본은 고속도로의 상습 지·정체 구간에 차로를 신설하여 도로를 넓힘으로써 차량의 운행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 교통 문제 연구소 ○○○ 연구원 -

- ① (가) : 도로 교통 분야의 CO₂ 발생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제시하여, 고속도로의 저탄소 교통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② (나) : CO₂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속도로의 통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들어, '진입 차량 통제 제도'를 폐지해야 함을 제안한다.
- ③ '(나)-A'+(다) : CO₂ 감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행 고속도로 교통 관리 시스템 중 일부는 실효성이 떨어짐을 지적한다.
- ④ '(나)-B'+(다) : 차로가 늘어날 경우 지·정체가 줄어들어 대기오염 절감 편익이 커지므로, 상습 지·정체 구간에서는 갓길 차로제를 확대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 ⑤ (나)+(다) : CO₂의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의 고속도로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보다 차량의 통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8.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활성화'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서론 - 약물을 오·남용하는 청소년의 증가 ㉠
본론
I.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의 장애 요소 ㉡
1. 경련, 혼수상태, 사망 등의 육체적 위험
2. 정상적인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의 어려움
II.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원인
1. 자아 정체성 미확립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
2. 초조함, 불안, 우울증 등의 정신적 장애 ㉢
3.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인식 부재
4. 약물에 대한 또래집단의 유혹
III.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방안 ㉣
1. 약물 오·남용의 위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2.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예방 교육 강화
3. 약물 오·남용 증세를 치료하는 시설의 확충 ㉤
결론 -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활성화 촉구

- ① ㉠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한다.
- ② ㉡은 하위 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 약물 오·남용의 폐해'로 바꾼다.
- ③ ㉢은 상위 항목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I'의 하위 항목으로 옮긴다.
- ④ ㉣에는 'II-1'의 내용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공동체 의식 함양 교육 강화'를 하위 항목으로 추가한다.
- ⑤ ㉤은 'II'와 'III'의 논리적 관계를 고려하여 삭제한다.

9. <보기>의 용례로 '길'의 의미를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보기>에서 이끌어 낸 '길'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내로 가는 길을 넓혔다. / 아이들이 길에서 놀고 있다. ○ 내가 살아온 길을 회고해 보았다. / 문명이 발전해 온 길을 돌아본다. ○ 출장 가는 길에 잠시 고향에 들렀다. /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 제자를 자식처럼 아끼는 것이 스승의 길이다. /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인의 길이다.

- ① 어떤 일을 행하는 수단과 방법
- ② 어떤 행위가 벌어지는 도중이나 기회
- ③ 어떤 것이 지나갈 수 있게 땅 위에 난 공간
- ④ 어떤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과정
- ⑤ 어떤 자격이나 신분으로서 해야 할 도리나 임무

10.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유산'을 홍보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의 가치를 드러낼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방문을 완곡하게 권유할 것

- ① 해인사 장경판전 : 보석처럼 빛나는 나라 사랑의 가르침이 담긴 대장경판을 아십니까. 해인사 장경판전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 ② 수원 화성 : 조선 건축 기술의 우수성을 드러낸 성곽 건축의 꽃. 정조의 효심을 품은 채 늘어서 있는 성곽의 늠름함을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③ 고창 고인돌 유적 : 기원전 3천 년의 고분 문화가 담겨 있는 청동기 지도자들의 무덤. 한반도 선사시대 문화를 그대로 간직한 고인돌을 만나 보십시오.
- ④ 경주 석굴암 : 석굴암에 오르다 보면 토함산의 자연 풍광과 다양한 수목들이 당신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이들과 맞잡스런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 ⑤ 조선 왕릉 : 유교와 풍수 등 한국인의 세계관이 압축된 왕실 유적. 왕실의 권위를 드러내면서도 자연을 존중했던 선조들의 자연친화적 장묘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11. <보기>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p style="text-align: center;">< 보 기 ></p> <p>'고이'는 일본 사람들이 주로 기르는 관상어로 생김새가 붕어와 비슷하다. ㉠이런 환경에서 고이는 90~120cm까지 크게 자란다. 고이는 물의 흐름이 느린 큰 강이나 호수에서 ㉡물풀이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 산다. 하지만 고이를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25cm까지밖에 자라지 못한다.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요리를 하기 전에 식초를 탄 물에 담가 냄새를 제거하기도 한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고이를 수족관이나 연못보다 훨씬 작은 어항에서 키우면 5~8cm까지밖에 ㉣자라지 못한다.</p> <p>이는 비단 고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인간도 고이와 같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에 따라 사람됨이 ㉤수정될 수 있다.</p>

- ① ㉠은 글의 흐름이 어색하므로 바로 뒤의 문장과 맞바꾸어야겠다.
- ② ㉡은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물풀을 뜯어 먹거나 작은 동물을 잡아먹고'로 고쳐야겠다.
- ③ ㉢은 글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해야겠다.
- ④ ㉣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자랄 수 없다.'로 바꾸어야겠다.
- ⑤ ㉤은 문맥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결정'으로 고쳐야겠다.

12 <보기>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에서의 ‘잘못’과 ‘나는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프다.’의 ‘잘못’은 단어의 형태는 같으나 단어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르다. 즉, 전자의 ‘잘못’은 명사이지만, 후자의 ‘잘못’은 부사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폼사 통용’이라고 한다.

- ① [오늘 아니 가겠다고 하더라.
[아니! 벌써 그곳에 도착했어?
- ②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부모님 말씀대로 행동해야 한다.
- ③ [온다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간절히 바라면 기회는 온다.
- ④ [나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었다.
[철수는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
- 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다섯이 모였다.
[다섯 사람이 모여서 일을 시작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식은 중학교 때 전국 백일장에서 신기한 문체로 심사 위원들을 놀라게 했고, S대 법대를 수석으로 입학한 후 최연소로 고등고시에 합격하여 지금은 판사를 하고 있다.

벽시계가 자정 5분 전을 가리키고 있다. 명식은 아직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다. 지연은 다시 침대에서 몸을 일으킨다. 그리고 멍한 얼굴로 어둠 속을 응시하고 앉아 다시 바깥 기척을 지키기 시작한다.

..... 이웃에서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명식이 전혀 딴얼굴 모습으로 대문을 나서는 걸 보았노라고도 했고, 어떤 낮모를 사내가 지연이네 대문 앞에서 머뭇머뭇 서성거리고 있는 걸 보았는데, 나중에는 그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대문 안으로 사라져 들어가는 걸 보고 적잖이 수상쩍은 생각이 들었노라고도 했다. 명식이 변장을 하고 해괴한 바깥 나들이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지연은 차츰 명식의 거동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과연 밤 외출이 늘고 있었다. 비로소 관심이 가기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무실에서 돌아오는 그의 얼굴은 딱할 정도로 피곤해져 있곤 했다. 대문을 들어서면 그의 표정은 날개 꺾인 새처럼 늘 힘이 없었고 죄지는 아이처럼 의기소침해져 있었다. 말수도 훨씬 적어진 듯했고 영문 모를 신경질 같은 것이 돌아 있을 적도 있었다. 피곤한 귀가의 연속이었다.

그런데도 명식은 저녁이 끝나면 늘 밤 외출을 서둘렀다. 언제 어떻게 대문을 나간지도 모르게 혼자 살짝 집을 빠져나가곤 했다. 2층 서재실에서 피로를 풀고 있으려니 싶다 보면 어느새 정원의 외등이 꺼져 있곤 했다. ① 밤 외출을 나갈 때는 반드시 외등을 끄고 나서 현관을 나서는 버릇 역시 짐작이 가는 데가 있는 일이었다.

그의 변장은 그런 밤 외출 때만도 아닌 듯했다. 외출이 없는 날도 그는 저녁을 끝내자마자 곧장 2층으로 올라가 혼자 서재 속에 깊이 파묻혀 버리기 일췌였다. 혼자 좀 조용히 쉬고 싶다는 게 그때마다의 그의 핑계였다.

그러나 지연은 알고 있었다. 명식이 그렇게 서재 안에 파묻혀 있을 때에도 그가 가발을 쓰고 콧수염을 붙이고, 어쩌면 그의 얼굴을 가장 잘 감춰줄 수 있는 안경까지 걸쳤을 모습이 자주 상상되곤 했다. 그런 식으로 변장을 하고 그는 자기 가면 뒤에서 정말로 조용한 휴식을 얻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사실 지연이 명식의 변장한 얼굴을 본 것은 앞서 말한 대로 그의 기벽을 발견한 그 첫날 한 번뿐이었다. 그런데 그 첫 번이 중요했다. 지연은 그 첫 번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의 명식은, 가면이 된 그 명식의 얼굴은 속속들이 스며든 피로를 한 오라기 한 오라기씩 조심스럽게 씻어 내면서 조용한 휴식에 젖어 있는 모습이 분명했다. 뿐만 아니라, 지연은 시일이 지날수록 더욱더 피곤해져서 대문을 들어서면 명식의 얼굴 모습과, 그 얼굴을 가면 뒤에 감춘 채 조용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날의 모습이 겹쳐 이상스러운 만큼 절실한 남편의 휴식과 위안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휴식과 위안이기도 했다.

명식의 변장에서 지연은 자신도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동정과 스스로의 감동 같은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지연은 명식을 방해하지 않았다. 해괴한 느낌은 어느새 말끔히 가서 나갔다. 오히려 그의 변장을 돕고 나섰다. 명식이 2층 서재로 들어박히는 것을 절대 아는 체하지 않았다. 밤 외출의 유희를 느끼는 눈치가 보이면 외등을 끄고 자신이 침실로 숨어 들어가 버림으로써 은밀스럽게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그러면 명식은 영락없이 혼자 대문을 빠져나갔고, 그 가면의 외출에서 그는 퇴근 때의 피곤기와 짜증스런 신경질을 말끔히 씻고 돌아왔다. 물론 지연은 밤 외출에서 돌아오는 명식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데도 배려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므로 대문을 들어서면 그의 표정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지만, 그런 날 밤이면 거의 빠짐없이 어둠 속으로 2층 나무 계단을 내려와 비로소 그녀를 발견한 듯 한껏 다감해지고 한껏 활력에 찬 잠자리를 갖게 되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 저래 명식의 밤 외출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다. 2층 서재로 숨어 들어가 그의 가면 뒤에서 이상스런 휴식에 젖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사무실에서 묻어온 피곤기를 가면 위에서 말끔히 씻어 낸 다음 지연을 찾아 밤늦은 2층 계단을 내려오곤 했다. 그는 분명 그 가면 뒤에서야 비로소

휴식을 얻을 수 있는 듯했다. 그것은 어쩌면 자기 변신의 연극기 같은 것에서 오는, 가면 뒤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시간이 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것은 어쨌든, 이제 지연이 명식을 속속들이 다 만나는 것은 그가 그 밤 외출에서 이상스런 방법으로 피로를 씻고 새 힘을 얻어 돌아오는 날뿐이었다.

그리고 지연에게도 이윽고 한 가지 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명식을 만나고 싶은 밤의 소망은 반드시 그의 가면을 연상시켜 주곤 했다. 지연은 명식의 가면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명식의 가면을 만나고 싶어하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의 가면이 어느새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고, 어찌 된 일인지 그녀는 그 명식의 동기까지를 포함하여 그러한 자신을 스스로 수긍해 가고 있었다. 명식에게도 혹시 그런 기미가 엿보였기 때문일까. 지연은 이제 오히려 명식의 맨 얼굴 쪽에서 어떤 불편스런 가면이 느껴지고 있을 지경이었다. 그녀에게는 명식이 맨 얼굴로 대문을 들어설 때의 표정이야말로 영락없이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변화 없고 그리고 모종 뻘뻘스런 피곤기 같은 것이 온통 그를 가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그러나 지연은 그토록 익숙해진 명식의 가면을 아직도 똑똑히 본 일이 없었다.

그 첫 날 한 번밖엔 명식이 자기 가면 뒤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모습을, 그것이 진짜 자신의 얼굴이나 되는 양 익숙해져 버린 가면으로 의기양양 밤 외출에서 돌아오곤 할 명식을 다시 본 일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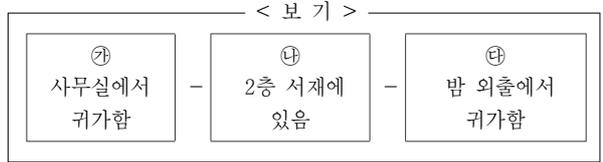
지연은 보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그 명식의 얼굴을 자신 속에 깊이 지녀버리고 있었다. 문득문득 그것을 만나고 싶은 밤이 많았다. 이날도 지연은 그런 명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 이청준, 「가면의 꿈」 -

1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하여 그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여 사건 흐름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인물들을 현실감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시대적 상황을 사실적으로 제시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제약을 구체화하고 있다.

14 <보기>는 위 글을 ‘명식’의 행위를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지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연은 점차 ㉠보다는 ㉢에서의 명식을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다.
- ② 지연은 ㉡뿐만 아니라 ㉢일 때도 명식이 가면을 쓴다고 믿고 있다.
- ③ 지연은 명식에게 ㉠에서는 동정을, ㉢에서는 불안함을 느끼고 있다.
- ④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심리 상태가 ㉠에서보다 안정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 ⑤ 지연은 ㉢에서의 명식의 행동이 ㉠에서의 피곤을 풀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15 ㉠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식은 현재의 삶에 대해 성찰을 하고 있다.
- ② 명식이 현실에 적응하지 못해 비판하고 있다.
- ③ 명식과 지연이 서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다.
- ④ 명식이 자신이 추구하는 삶에 대해 집착하고 있다.
- ⑤ 명식은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명식’을 이해한다고 할 때 적절한 것은?

< 보 기 >

심리학자 융은 인간에게는 ‘페르소나(persona)’와 ‘그림자(shadow)’의 측면이 있다고 한다.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에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아의 한 측면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로지 페르소나만 추구하려 한다면 그림자가 위축되어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지만, 자발성, 창의성,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어 지나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

- ① 명식은 자신의 그림자 측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가면을 쓴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명식은 현재의 페르소나 측면이 자신의 진정한 자아라고 믿고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명식이 페르소나 측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지연을 멀리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명식은 페르소나 측면이 그림자 측면보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
- ⑤ 명식이 변장하는 행위는 그림자 측면을 보완하여 자신으로부터의 소외를 극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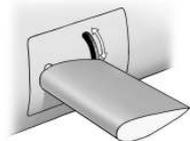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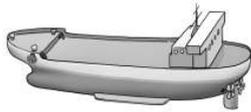
배가 심하게 흔들리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현재 배의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많이 쓰이고 있는 장치는 ‘빌지킬’, ‘안티롤링 탱크’, ‘핀 안정기’ 등 세 가지이다.

‘빌지킬’은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장치로 군함뿐만 아니라 많은 배들이 사용하고 있다. 빌지킬은 물에 잠기는 배의 측면에 붙이는 얇은 판을 가리킨다. 빌지킬을 갖춘 배는 얇은 판이 배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설치되어 있다. 빌지킬이 있으면 배가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왼쪽에 있는 빌지킬로 인해 물과 접촉해서 생기는 마찰 저항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는 원 위치로 되돌아가게 되므로 배의 흔들림은 줄어들게 된다.

빌지킬이 배의 크기와 관계없이 두루 사용되는 장치라면 ‘안티롤링 탱크’는 큰 배들이 주로 사용하는 장치이다. 안티롤링 탱크는 커다란 U자형 관을 배 안쪽에 설치하고 그 안에 물을 채워둠으로써 흔들림을 줄여주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도 왼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U자형 관을 통해 물이 이동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배의 기울어진 방향과 U자형 관 안의 물의 위치가 항상 일치하진 않는다.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물은 오른쪽에 있고,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면 물이 왼쪽에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쪽에 있는 물의 무게가 배를 눌러줌으로써 원 위치로 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물이 이동하는 시간 차이를 이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배가 기울어지는 방향과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이 같은 방향에 있게 되면 오히려 배가 뒤집어질 수도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최근에 설치되는 안티롤링 탱크는 펌프를 이용하여 U자형 관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 맞추어 배가 흔들리는 것을 줄이고 있다.

빌지킬과 안티롤링 탱크가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장치라면 최근에 개발된 장치는 ‘핀 안정기’이다. 배 양쪽에 비행기 날개 모양으로 달려있는 장치가 핀 안정기이다. 물체가 움직일 때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 부르는데 핀 안정기는 날개의 움직임에 의해 발생하는 양력을 이용한다.

그림에서 보듯 핀 안정기의 앞쪽은 배에 고정되어 있지만 뒤쪽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배의 앞쪽에서 바라볼 때 배가 왼쪽으로 기울면 왼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오른쪽 핀 안정기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그러면 왼쪽 핀 안정기 아래쪽의 물의 흐름은 느려지고 위쪽은 빨라지면서 핀 안정기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높아진다. 이 압력차로 인해 왼쪽 핀 안정기에서는 위로 양력이 작용하고, 반대로 오른쪽 핀 안정기에서는 양력이 아래쪽으로 작용하여 배의 흔들림을 줄일 수 있다.



1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빌지킬은 양력을, 핀 안정기는 마찰 저항을 이용한다.
- ② 빌지킬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흔들림 방지 장치이다.
- ③ 안티롤링 탱크는 규모가 큰 배들이 사용하는 장치이다.
- ④ 흔들림 방지 장치 중에 핀 안정기는 최근에 개발된 것이다.
- ⑤ 안티롤링 탱크는 U자형 관 안의 물이 이동하는 시간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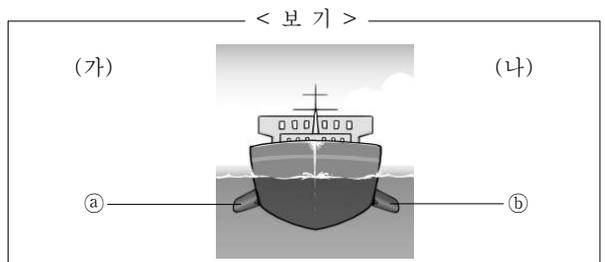
18. 위 글을 읽은 사람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파도의 움직임에 따라 배의 흔들림이 시작되자 선장은 선원을 모두 갑판 위로 모이도록 했다. 선장은 선원들에게 배가 오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모두 왼쪽으로 이동하고, 왼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했다.

- ① 빌지킬이 있었다면 선원들의 움직임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겠군.
- ② 선원들의 움직임이 양력을 발생시켜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 ③ 핀 안정기의 역할을 했던 선원들로 인해 배의 속도가 빨라졌겠군.
- ④ 선원들을 양쪽으로 동시에 고르게 분산시켰다면 배가 뒤집어질 수 있었겠군.
- ⑤ 선원들이 U자형 관 안의 물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의 흔들림이 줄어들었겠군.

19. <보기>의 ㉠과 ㉡는 배의 앞쪽에서 바라본 핀 안정기를 그린 것이다. 배가 (가) 방향으로 기울 때 원 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핀 안정기의 움직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의 뒤쪽은 모두 위로 움직인다.
- ② ㉠과 ㉡의 뒤쪽은 모두 아래로 움직인다.
- ③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인다.
- ④ ㉠의 뒤쪽은 위로 움직이고, ㉡의 뒤쪽은 아래로 움직인다.
- ⑤ ㉠의 뒤쪽은 위와 아래로 계속 움직이고, ㉡의 뒤쪽은 움직이지 않는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 ① 조절(調節)하여
- ② 조성(造成)하여
- ③ 조율(調律)하여
- ④ 조종(操縱)하여
- ⑤ 조치(措置)하여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이러스는 보통 세균의 100분의 1 정도의 크기로 단백질과 핵산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바이러스는 세포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스스로 물질대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생물에 기생할 때는 숙주* 세포 내의 효소와 에너지 등을 이용하여 물질대사를 하고 증식을 하는 등 생물학적 특성을 보인다. 바이러스가 생존을 위해 다른 생물을 이용하는 데만 그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기생'이라는 바이러스의 생존 방식은 필연적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방법으로 숙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일까? 바이러스는 먼저 자신의 숙주가 되는 미생물, 식물, 동물 등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어 유전 물질을 세포 내로 들여보낸다. 이렇게 세포 내로 들어간 유전 물질은 숙주 세포의 단백질 합성 기구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낸다. 바이러스는 이 효소들을 이용하여 유전 물질을 대량 복제하며, 복제된 유전 물질로부터 바이러스의 단백질 껍질을 합성한다. 이런 방식으로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조립 과정을 거치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완성된다. 이때 하나의 숙주 세포에서 복제되는 바이러스 수는 엄청나다.

(다) 이렇게 증식한 바이러스들은 숙주 세포를 뚫고 밖으로 나와 주변의 다른 숙주 세포들로 다시 침투한다. 물론 이때 기존의 숙주 세포는 죽는다. 만일 숙주가 사람이라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많은 수의 숙주 세포가 파괴되어 수두, 유행성 눈병, 독감, 에이즈 등 다양한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세균에 의한 질병과 달리 치료약이 별로 없다.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을 치료하려면 체내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제거해야 하는데 숙주 세포를 그대로 둔 채 바이러스만 죽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

(라) 그러나 최근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생물체의 유용한 DNA*를 유전자 운반체에 끼워 넣어 재조합 DNA를 만든 후 대장균과 같은 숙주 세포에 삽입하여 유용한 유전자를 합성하는 것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유전자 운반체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이러스의 일종인 '박테리오파지'이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의 세포 표면에 달라붙은 다음 자신의 유전 물질을 세균 세포 내로 들여보내 대량으로 증식한 뒤 결국 숙주를 파괴하고 나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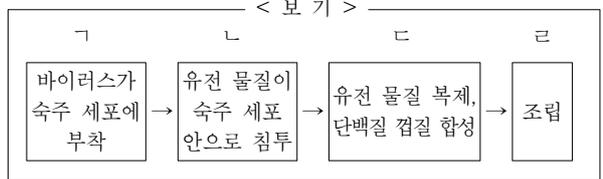
(마) ㉠ 현대 의학은 당뇨병 치료에 필요한 인슐린을 얻기 위해 이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다. 박테리오파지에 인슐린 합성에 필요한 DNA를 끼워 넣어 이를 대장균에 집어 넣어 복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많은 양의 인슐린을 얻어내 인슐린 주사를 만든다. 인슐린 주사는 부족한 인슐린을 보충하는 정도 이긴 하지만, 동물에게서 인슐린을 얻어내던 기존의 치료 방식에 비하면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질병의 주원인이고 숙주 세포를 파괴하는 등 부정적인 존재로만 여겨지던 바이러스가 현대 의학의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숙주 : 기생 생물에게 영양을 공급하며 생명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는 생물.
** DNA :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 염색체의 중요 성분을 이루는 유전자 분체.

2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③ (다) : 바이러스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라) : 바이러스가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바이러스가 지닌 다양한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22. <보기>를 참고로 위 글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서 ㄱ~ㄹ에 활용되는 유전자는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②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할 때, ㄴ의 과정까지 바이러스는 유전자 운반체 역할을 한다.
- ③ ㄴ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바이러스만 제거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④ ㄷ에서 숙주의 단백질 합성 기구는 바이러스에 힘을 가하여 대량 증식을 일으키게 한다.
- ⑤ ㄹ은 복제된 바이러스 유전 물질이 단백질 껍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다.

23. ㉠과 <보기>를 관련지어 이해할 때 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당뇨병은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췌장의 베타 세포에 유전자 이상이 생겨 인슐린을 충분히 합성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걸리게 되는 병이다. 그러므로 당뇨병에 걸린 환자에게는 이상이 생긴 유전자 대신 인슐린을 원활하게 합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췌장의 베타 세포에 주입해 주어야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 ① 바이러스를 이용한 현대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아직까지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② 인슐린 합성의 양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이러스를 활용한 당뇨병 치료 연구의 궁극적인 과제라고.
- ③ 박테리오파지로부터 숙주 세포에 해당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겠다.
- ④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당뇨병 치료의 효과를 얻으려면 인슐린을 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숙주 세균을 찾아야겠다.
- ⑤ 당뇨병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복제할 수 있는 DNA를 재조합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순이(順伊)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 할박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우에 덮인다. 방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벽과 천정이 하얗다. 방안에까지 ㉡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훌훌이 가는 것이냐,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내가 가는 곳을 몰라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 있는 것이냐, 네 쪼고만 발자욱을 ㉢ 눈이 자꾸 내려 덮여 따라갈 수도 없다. ㉣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욱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 일 년 열두 달 하냥 내 마음에는 ㉤ 눈이 나리리라.
 - 윤동주, 「눈 오는 지도」 -

(나)
 ┌ 감나무쭝 되랴,
 [A]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 내 마음 사랑의 열매가 달린 나무는!
 ┌ 이것이 제대로 번을 떼는 저승밖에 없는 것 같고
 [B] 그것도 내 생각하던 사람의 등 뒤에 번어가서
 └ 그 사람의 머리 위에서나 마지막으로 휘드러질까 본데,
 ┌ 그러나 그 사람이
 [C] 그 사람의 안마당에 심고 싶던
 └ 느껴온 열매가 될는지 몰라!
 ┌ 새로 말하면 그 열매 빛깔이
 [D] 전생의 내 쉰(진) 설움이요 쉰(진) 소망인 것을
 └ 알아내기는 알아낼는지 몰라!
 ┌ 아니, 그 사람도 이 세상을
 [E] 설움으로 살았던지 어쨌던지
 └ 그것도 몰라, 그것을 몰라!
 - 박재삼, 「한」 -

(다)
 거기 나무가 있었네.
 노을 속엔
 언제나 기러기가 살았네.
 붉은 노을이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면
 거기 나무를 세워 두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네.
 쏟아져 내리는 운하수 하늘 아래
 창문을 열고 바라보았네.
 발뒤축을 들고 바라보았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희미한 하류로
 머리를 두고 잠이 들었네.
 나무가 아이의 잠자리를 찾아와
 가슴을 다독여 주고 돌아가곤 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일만 마리 매미 소리로
 그들을 만들어 주었네.

모든 대답이 거기 있었네.
 그들은 백사장이고 시냇물이었으며
 빨기풀이고 뜸부기 알이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이제는 무너져 흩어져 버렸지만
 등치마저 타 버려 재가 돼 버렸지만
 금관악기 소리로 퍼지던 노을
 스쳐가는 늦기러기 몇 마리 있으리.
 귀 기울이고 다가서 보네.
 까마득한 하류에 나무가 있었네.
 거기 나무가 있었네.
 - 이진청, 「하류」 -

24.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 ③ 과거 회상을 통해 고조된 정서가 나타나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 ⑤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나타나 있다.

25. <보기>를 참고할 때, (가)의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는 ‘눈(雪)’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변주하면서 이별의 안타까움과 지속되는 순수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 ①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내리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에는 순이와의 이별에 직면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 ② ‘방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라고 하였으므로, ㉡은 화자의 상상 속에서 내리는 눈이겠네요. 이것은 ‘벽과 천정’의 이미지로 연결되면서 이별로 인한 공허함을 드러내 주는 것 같아요.
- ③ 순이의 ‘쪼고만 발자욱’을 ‘자꾸 내려’ 덮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은 순이를 따라갈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 같아요.
- ④ ‘꽃 사이로 발자욱을 찾아 나서면’으로 보아, ㉣은 순이가 있는 곳으로 화자를 안내하는 ‘지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⑤ ‘일 년 열두 달 하냥’으로 보아, ㉤은 순이를 향한 화자의 변함없는 심정을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6. 시인이 (나)를 창작하면서 떠올렸을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열매'에서 연상된 빛깔에 화자의 정서를 담아내야지.
- ② [B]에는 나뭇가지가 '번어가'는 형상을 통해 화자의 소망을 표현해야지.
- ③ [C]에는 '그러나'를 통해 소망의 성취를 확신하지 못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야지.
- ④ [D]에는 '새로 말하면'을 통해 지금까지 지속되었던 화자의 심경이 변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야지.
- ⑤ [E]에는 '그 사람도'를 통해 '그 사람'과 공감미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현해야지.

27. (나)와 (다)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와 달리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와 달리 (다)는 시각을 청각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다)와 달리 (나)는 어순을 도치하여 화자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28~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어휘 수는 어림잡아 60만 개 안팎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한자어이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는 상당히 이른 시기부터 우리 조상들의 관념과 사유의 세계를 지배해왔기 때문에 한자어는 국어 어휘 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이들 한자어는 원칙적으로 외래의 요소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우리말 속에서 사용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 한자어가 국어의 어휘 속에 자리 잡게 되는 방식을 살펴보자.

첫째, 단어의 형성에서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할 때 한자어의 의미가 핵심이 되는 경우이다. 특히 고유어와 결합하여 동사, 형용사가 될 때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 '탐내다(貪내다), ① 이롭다(利롭다)' 등이 이런 예에 속한다.

둘째, 한자어구(漢字語句)가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하나의 낱말로 인정됨으로써 한문이 지니고 있는 통사적 특성이 사라지는 경우이다. 여기에는 각기 성격을 달리하는 한자어의 무리가 있다. 첫 번째 무리는 도대체(都大體), 심지어(甚至於) 등 국어에서 하나의 품사로 취급되는 어구들이고, 두 번째 무리는 새옹지마(塞翁之馬), 막역지우(莫逆之友)와 같이 고사성어

나 사자성어로 만들어진 어구들이며, 세 번째 무리는 한자의 원뜻대로 풀이하면 우리말 어순과는 달리 뒤바뀐 것으로 보이는 낱말들, 예컨대 관광(觀光: 경치를 구경함), 보전(保全: 온전하게 지킴)같은 것들이다.

셋째, 한자어 본래의 한자음이 변하여 국어의 고유어처럼 쓰이는 경우로 '과혁[貫革: 관혁], 가난[艱難: 간난]' 등과 같은 낱말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낱말은 본래는 한자어였지만 한자의 원음을 포기하고 우리말 소리로 변하여 쓰이면서 고유어로 혼동되기도 한다.

넷째, 한자가 고유어와 동의(同義) 중복의 형식으로 어울려 새로운 우리말을 만들어 내는 경우이다. '분가루(粉가루), 온전하다(온순하다)' 등의 낱말들이 이런 예에 해당한다. 이러한 낱말들은 의미가 중첩되면서 원래의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방식들을 통하여 한자어는 고유어와 잘 어울리면서 국어의 어휘 수를 풍부하게 늘려왔고 지금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28.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국어의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의 비중은 매우 크다.
- ② 한자성어는 국어에서 하나의 단어로 인정되어 쓰인다.
- ③ 한자어는 고유어와 결합하면 본래의 한자음이 변한다.
- ④ 한자어는 외래의 요소이지만 자연스럽게 국어에 동화되었다.
- ⑤ 한자어와 고유어가 결합된 어휘는 현재에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

29.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ㄱ. 고의로(故意로), 간신히(艱辛히)
 - ㄴ. 별안간(瞥眼間), 급기야(及其也), 진수성찬(珍羞盛饌)
 - ㄷ. 독서(讀書), 가출(家出)
 - ㄹ. 배웅[陪行: 배행], 누비[衲衣: 납의], 장구[杖鼓: 장고]
 - ㅁ. 튼실하다(튼實하다), 굳건하다(굳健하다)

- ① ㄱ을 보니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한 부사에서도 한자어의 의미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겠군.
- ② ㄴ은 여러 개의 한자가 결합하여 이루어졌지만 국어에서 하나의 낱말로 사용되겠군.
- ③ ㄷ을 보니 모든 한자어의 어순은 우리말의 어순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ㄹ을 보니 한자음이 변해서 만들어진 낱말은 한자어에서 온 말이라는 것을 알기 어렵겠군.
- ⑤ ㅁ은 유사한 의미를 지닌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하면서 기존의 의미를 강조하는 어휘로 바뀐 것 같군.

30. ①처럼 '한자어+롭다'의 결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슬기롭다
- ② 예사롭다
- ③ 여유롭다
- ④ 감미롭다
- ⑤ 향기롭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오랜 세월 동안, 서양의 예술가들은 ‘자연’을 소재로 예술 작품을 창작해 왔다. 그들이 다룬 자연은 산, 강, 바다와 같은 풍경뿐만 아니라, 동·식물의 개별적 형상, 인간의 신체, 자연의 질서 등을 모두 포괄한다. 서양에서는 여러 예술 사조와 예술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예술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 시대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자연을 대상으로 삼은 대표적 사조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있다. 두 사조의 관심은 ‘자연의 모방’에 있었지만, 자연을 모방하려는 목적과 방법, 또 모방하려는 자연의 종류가 달랐다. 고전주의의 핵심 이론은 ‘아름다운 자연의 모방’으로, ㉠ 고전주의자들이 주로 모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우리 안의 자연 즉, 인간의 신체였다. 그들은 자연의 모방을 통해 궁극적으로 미적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들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모든 자연은 아름다움과 결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부분은 모방하고 결함 있는 부분은 수정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려고 했다.

예술에서 모방의 대상으로 우리 밖의 자연 즉, 풍경이 인간을 제치고 예술의 주요한 대상으로 떠오른 것은 18세기에 시작된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 낭만주의자들은 자연을 원초적이고 거대한 힘을 지니고 완전무결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인간은 왜소하고 미약한 존재로 인식했다. 심지어 낭만주의자들은 인간의 힘을 압도하는 자연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모방하기보다는 자연의 위대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형상화했다.

19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서양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공업 사회로 진입하는데, 이때 등장한 예술 사조가 ㉢ 모더니즘이다. 이 시대의 예술가들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자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 주었다. 고전주의자들과 낭만주의자들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자연을 모방한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기술의 진보에 대한 신념을 지니고 있었던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더 이상 자연을 모방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들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은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으며, 그런 자연을 정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자연보다 더 아름다운 대상은 인간이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자연을 예술의 소재로 삼았지만,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연을 현실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1차, 2차 세계 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서양의 현대 예술가들은 자연의 인간화를 주장한 모더니즘 예술가들의 자연관에 반기를 들었다. 특히 ㉣ 생태 예술가들은 과학과 기술 문명으로 인해 황폐해진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는 자연의 모습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고, ㉤ 자연을 모방하는 예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관계 맺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생태 예술가들이 말하는 모방이란 자연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지닌 가치와 정신 등을 닮으려는 실천적 모방이다. 인공의 산물이지만 마치 자연의 산물로 보일 정도로 자연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31. 위 글의 중심 내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서양 예술의 미적 범주는 어디까지인가?
- ② 서양 예술을 이끌어 온 사조는 무엇일까?
- ③ 서양 예술가들은 왜 자연을 모방하려고 했을까?
- ④ 서양 예술가들의 자연관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 ⑤ 서양 예술에서 자연과 예술은 어떻게 대립되어 왔는가?

32.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감상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바람 부는 날> -

낭만주의 화가인 터너가 그린 이 작품은 먹구름이 모여드는 하늘을 배경으로, 격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위태롭게 떠 있는 배를 묘사하고 있다.

- ① 자연의 결함을 수정하여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표현했구나.
- ② 인간에 비해 거대한 힘을 지닌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려 했구나.
- ③ 주관을 배제하고 인간과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 했구나.
- ④ 자연에 맞서 싸우는 인간의 강인한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내려 했구나.
- ⑤ 자연을 소재로 삼아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인간의 위대함을 형상화하려 했구나.

33.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자연에는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다.
- ② ㉠과 ㉡는 ㉢와 달리 자연이 예술 작품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 ③ ㉡는 ㉢와 달리 자연이 인간의 힘을 압도한다고 생각했다.
- ④ ㉢는 ㉠, ㉡와 달리 인공적인 것을 자연보다 더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 ⑤ ㉣는 ㉢와 달리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했다.

34. 생태 예술가가 ㉠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할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남성의 몸을 본떠 만들었다는 ‘도리스(Doric) 건축 양식’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기둥 반지름의 네 배로, 기둥의 높이는 열네 배로 설정했다.
- ② 프랑스의 ‘베르사이유 궁전’의 정원에는 수 km에 걸쳐 직선으로 뻗어 있는 길옆으로 잘 다듬어진 나무들과 조각상들이 기하학적으로 배열되어 있다.
- ③ 벨기에의 건축가 오르타는 건물의 곳곳에 식물 형태를 닮은 장식을 변주하여 사용하였다. 기둥은 꽃봉오리를, 실내 계단 난간은 넝쿨 줄기를 본떠 만들었다.
- ④ 빌라 사보아는 땅을 건축에서 해방시키자며 건물을 공중에 띄우고 건물을 지지하는 기둥만 땅과 접하게 하여 비게 된 건물 밑의 땅을 정원으로 활용한 건물을 지었다.
- ⑤ 사막 지대인 미국 산타페의 ‘어도비 건축물’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모래와 진흙으로 만든 갈색 벽돌을 사용하여, 자연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자연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감각과 지각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감각을 지각으로 바꿔 놓는가? 감각은 그 자체로서는 단지 자극에 대한 의식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의 시작 단계로 그것 자체로는 아직 인식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각이 공간과 시간 속에서 어떤 대상-예컨대 사과-의 둘레에 모였다고 하자. 코의 후각, 혀의 미각, 망막의 시각, 형태를 알아내는 손가락과 손의 촉각을 이 사물의 둘레에 모이게 하자. 그러면 이제 자극에 대한 의식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대상에 대한 의식이 생긴다. 다시 말하면 지각이 생긴다. 감각이 인식으로 옮겨 간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행은 자동적인가? 여러 가지 감각이 저절로 모여서 질서를 갖추고 지각이 되는가? 경험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칸트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여러 가지 감각은 피부와 눈과 귀와 혀로부터 뇌에 이르는 무수한 신경을 통해 전달된다. 이렇게 전달되는 감각들은 그냥 놓아두면 끝까지 오합지졸이며 혼돈의 ‘다양’에 지나지 않는다. 전신의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한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들이 아무런 도움 없이 저절로 이해되어 명령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상황이다. 이 오합지졸, 곧 감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감각을 취사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고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

칸트는 우선 모든 보고가 반드시 접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현재의 목적에 알맞은 지각으로 형성될 수 있는 감각만이 선택된다는 것이다. 시계가 똑딱거리고 있어도 들리지 않다가 우리의 목적에 시계 소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시계 소리가 전보다 커진 것도 아닌데 들리게 된다. 감각은 심부름꾼으로서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찾아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심부름꾼을 선택하고 부르는 사람, 즉 그들의 주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칸트는 두 가지 인식의 틀, 곧 ㉠공간과 시간을 통해 감각이라는 자료를 정리한다고 생각했다. 장군이 제출된 보고를 받은 장소와 작성 시간에 따라 정리하듯이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을 공간과 시간 속에 배열하고 여러 가지 감각을 여기의 이 대상, 저기의 저 대상, 현재 또는 과거에 귀속시킨다. 이 때 공간과 시간은 지각된 사물이 아니라 지각의 방식,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이미 정돈되었거나 앞으로 정돈될 모든 경험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고 또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은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이 경험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공간 및 시간의 법칙은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이렇게 해서 칸트는 경험주의자들과 달리 우리가 경험을 파악하는 방식 자체에 경험에 좌우되지 않는 것, 즉 인식 주체가 있음을 밝혔다.

35. 위 글의 서술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개념의 변화 과정을 통해 주장을 강화한다.
- ②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화제의 이해를 돕는다.
- ③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견해의 타당성을 높인다.
- ④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한다.
- ⑤ 대상에 대한 접근을 단계별로 진행하여 논점을 분명히 한다.

36. <보기>에 대해 칸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모든 지식은 경험과 감각을 통해 획득된다. 태어났을 때의 인간의 정신은 백지(tabula rasa)이고, 여기에 감각적 경험이 다양한 방법으로 글씨를 써서 마침내 감각으로부터 기억이 생기고 기억으로부터 관념이 생긴다.

- ① 당신은 지각이 도리어 경험과 감각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말았군요.
- ② 당신은 관념이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감각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군요.
- ③ 당신은 인간에게 경험이나 감각을 지휘하고 조정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말았군요.
- ④ 당신의 말과 달리 기억에서 관념이 생기고, 관념에서 기억이 생긴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 ⑤ 인간은 성장하면서 경험과 감각을 정돈하는 능력이 서서히 계발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합니다.

3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의 내용에 좌우되지 않는다.
- ② 절대적이고 필연적이고 불변한다.
- ③ 지각된 내용을 분류하고 정리한다.
- ④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의식을 가능하게 한다.
- ⑤ 감각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식의 틀이다.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前灘富魚蝦 앞 여울에 물고기와 새우가 많아
 有意劈波入 물결 뚫고 들어갈 생각 있는데
 見人忽驚起 사람 보고 문득 놀라 일어나서는
 蓼岸還飛集 **여뀌꽃 핀 언덕**에 도로 날아가 앉았네
 翹頸待人歸 목을 빼고 사람이 돌아가길 기다리다
 細雨毛衣濕 ㉠ **가랑비**에 털옷이 다 젖는구나
 心猶在灘魚 마음은 **여울의 물고기**에 있는데
 人澹忘機立 **사람**들은 말하네, **기심(機心)***을 잊고 서 있다고
 - 이규보, 「여뀌꽃과 백로(蓼花白鷺)」 -

*기심 : 기회를 엿보아 이득을 취하려는 마음.

(나)

우뚝이 곧게 서니 본받을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에 알 이 있어 찾아오라
 이제나 광야에 옮겨 모두 보게 하여라 <제5수>

세상이 하 수상하니 나를 본들 반길런가
 왕기순인(枉己順人)*하여 내 어테 읊아 가료
 산 좋고 물 좋은 골에 삼긴 대로 늙으리라 <제6수>

천황씨(天皇氏) 처음부터 이 심산에 혼자 있어
 너 보고 반기기를 몇 사람 지냈던고
 만고의 허다 영웅을 들어 보려 하노라 <제7수>

소허(巢許)* 지낸 후에 엄 처사*를 만났다가
 아쉽게 여의고 알 이 없이 버려 있더니
 오늘사 또 너를 만나니 시운인가 하노라 <제8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立巖二十九曲)」 -

* 왕기순인 : 자기 몸을 굽혀 남을 좇음.
 ** 소허 : 소부(巢父)와 허유(許由). 상고 시대의 대표적인 은자(隱者).
 *** 엄 처사 : 엄자릉(嚴子陵). 한나라 광무제 때의 은자(隱者).

(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쪼터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만치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
 에 사 오고야 만 것이다.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
 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찌든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튼튼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
 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
 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
 러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
 (情調)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

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 **비**를 기다림이 여
 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뭐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
 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
 침 큰 걸 하나 구한다쇼.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쇼."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쓸
 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담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쇼."

그는 내가 서계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중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덴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
 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났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
 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찌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라!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엿 파
 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겨왔다.

㉢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을엔 읊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
 게 파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 「파초」 -

3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대상을 본받으려는 화자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나)와 (다)에는 자연물과의 친밀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③ (가)와 (다)에서는 의인화된 대상을 화자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내면적인 갈등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가)~(다) 모두 세속을 떠나 이상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39. 시어나 시구를 중심으로 (가)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물고기’와 ‘새우’는 백로 입장에서 욕망의 대상이다.
- ② 백로는 ‘사람’ 때문에 일시적으로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 ③ 백로가 ‘여뀌꽃 핀 언덕’에 서 있는 모습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 ④ ‘사람들’과 화자 모두 백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 ⑤ 백로가 ‘여울의 물고기’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기심’을 잊지 못해서이다.

40.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는 배척의 대상이고 ㉡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 ② ㉠, ㉡는 모두 글쓴이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다.
- ③ ㉠, ㉡는 모두 계절적 배경을 알게 해 주는 소재이다.
- ④ ㉠는 대상이 처한 상황을, ㉡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시킨다.
- ⑤ ㉠는 연민의 정서를 불러일으키지만, ㉡는 동경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박인로의 ‘입암이십구곡’ 중 여기에 제시된 <제6수>와 <제8수>에는 ‘바위가 답함[암답(巖答)]’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다. 화자와 바위가 말을 주고받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시상 전개상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적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 ① <제5수>에 사용한 설의법을 <제6수>에서도 구사하여 두 수의 긴밀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② <제5수>와 <제6수>는 각각 바위의 위치에 대한 화자와 바위 사이의 의견 교환으로 볼 수 있다.
- ③ <제6수>에서 화자의 제안을 거절하는 바위의 입장을 제시하여 세속에 대한 비판 의식이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
- ④ <제7수>에서 화자가 궁금하게 여긴 내용에 대해 <제8수>에서는 바위의 입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 ⑤ <제8수>에서 ‘만고의 허다 영웅’에 ‘너’를 포함시킴으로써 바위의 고고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42. ㉠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물음에 대한 대답으로 거리가 먼 것은?

선생님 : ㉠에서 글쓴이는 ‘앞집 사람’의 거듭된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앞집 사람’이 답답해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 ① 글쓴이가 파초에 많은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 ② 글쓴이가 파초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 ③ 파초를 팔라고 권하는 앞집 사람을 언짢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 ④ 파초를 인격체처럼 대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⑤ 파초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금이 듣고 크게 놀라 물었다.

“네가 우치라 하니, 대국에 가서 무슨 장난을 하였기에 황제가 조서(詔書)를 내려 우리나라에까지 폐가 되게 하는가?” 우치가 대답했다.

“소신이 황제를 속인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조선을 소국이라 하여 매양 업신여기웁기로 소신이 비록 어리고 철이 없사오나 그 일이 통분하여, 대국에 들어가 여차여차한 일로 황제를 속이고 재주를 발휘하여 대국의 위엄을 꺾으려 한 것일 뿐, 다른 일은 없사옵나이다. 그러나 소신을 아무리 잡으려 하여도, 대국의 힘으로는 잡을 길이 없으즉 분함을 이기지 못해 본국으로 사신을 보낸 것이옵나이다.”

임금이 듣고 말했다.

“너의 재주가 그러하면 한번 구경하고자 하니 시험하여 특별히 재주를 보여 주면 네 원대로 하리라.”

하신데 우치가 아뢰기를,

“신의 재주를 구경하시려 한다면 시험하려니와 전하께서 놀라실까 하나이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것은 염려하지 말고 시험하라.”

우치가 재주를 행하는데, 이윽고 천지가 자욱하며 지척을 분별치 못하게 되었다. 임금이 괴이히 여기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갑자기 맑은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과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명랑하였다. 그제야 자세히 보니 명경창과 가운데 자신이 한 조각의 배를 타고 앉았는데, 배 가는 곳을 알 수가 없었다.

㉠ 임금이 크게 놀라 생각하기를, ‘이 몸이 어찌하여 이곳에 왔으며, 배에는 사공도 없으니 장차 어디로 갈꼬?’ 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천지를 분간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풍랑까지 심하여 배가 물결을 따라 물속으로 거의 잠기게 되었다. 임금은 정신이 혼미하여 낮이 몸이 붙지 아니하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하릴없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맑은 하늘이 아시거든 남은 목숨을 지켜 주소서.”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문득 동쪽 언덕으로부터 피리부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 바라보니 한 척의 작은 배가 들어왔다. 그 가운데 연밥 따는 선동이 머리에 연꽃을 꽂고 피리를 불며 들어와 배를 한 데 대고 사레하기를,

“전하께서 이렇듯이 심려하사 오죽 놀라셨겠습니까?” 하고, 술 항아리를 기울여 옥잔에 가득 부어 올렸다. 임금도 얼떨결에 반겨 묻기를,
 “나는 우연히 이곳에 왔다가 풍랑을 만나 하마터면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해주고 술을 권하니 감사하거니와, 알지 못하겠도다. 선동은 누구라 하는고?” 하며 받으니, 동자가 대답했다.
 “소동은 옥황상제께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귀양 와서 전첨사(田僉使)의 아들이 되었사온데 마침 이 곳을 지나가다 왔사오니 염려 마옵시고 뱃놀이나 하사이다.” 이어 피리 소리 한 곡조에 사면으로부터 선녀와 선관들이 무수히 다가오고 있었다.

[중략 줄거리] 선관과 선녀들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주고 왕은 전생에 그들과 벗이었음을 알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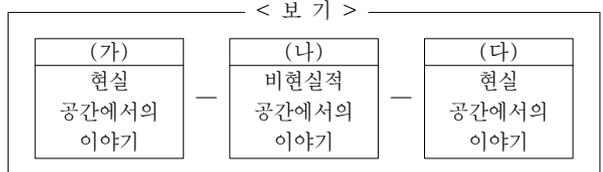
임금이,
 “뭇노니, 우치는 어떠한 사람이고?” 하니, 선관이 말했다.
 “우치는 손오공이라. 하늘 나라와 지하와 수궁을 모두 출입하는 재주를 품었으니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 때가 늦어서 돌아가니 이후에 다시 만나자.”
 이어 잔치 끝내는 노래를 피리로 불며 이별하거늘 임금이 바라보니, 선관 선녀들이 각각 배를 띄우고 가는데, 풍랑이 크게 일어나고 채색 구름이 두르니, 지척을 분별할 수 없어 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다. 이윽고 구름과 안개가 걷히며 햇빛이 빛나니, 임금이 그제야 살펴보았다. 그 사이에는 만첩태산이 둘러 있고 층암절벽이 반공에 달렸는 듯한데, 굽은 노송은 광풍에 흐트러져 넓은 바위를 덮은 가운데 자신이 홀로 앉아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아까 풍랑 중에 죽을 것을 선동이 구하여 살아났더니, 알지 못하겠도다. 어찌 이곳에 왔는고? 그러나 인적이 없고 산세는 험하니 가히 슬프도다.’ 하며, 장차 돌아갈 길이 아득하여 탄식하고 있었다. 뜻밖에 백호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기에, 임금이 놀라 엎드려졌다. 그때 선녀들이 모셔다가 놀라 붙들어 앉히자, 임금이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 자신은 전상(殿上)의 왕좌에 앉아 있는데, 주위의 여러 신하가 시위하고, 우치가 땅에 엎드려 있었다. 임금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반드시 잠을 들어 괴이한 춘몽을 꾸었도다.’ 하시고, 신하들더러 물었다.
 “과인(寡人)이 그 사이에 잠을 들었는가?” 여러 신하가,
 “전하께서 잠드신 적 없사옵니다.” 하고 아뢰거늘, 임금이 그 일을 생각하지 못하시더니 우치가 머리를 조아리며 사례하여 아뢰었다.
 “전하께서는 영주(瀛州) 삼신산(三神山)을 보시니 어떠시옵니까? 그러하오나, 바다 가운데서 풍랑에 고생을 하시고 봉래산(蓬萊山) 바위 위에서 백호를 만나시니 두렵지 아니하셨사옵니까?” 임금이 그제야 우치의 도술에 속은 줄 알고, 크게 칭찬하기를,
 “너의 재주는 진실로 고금에 없도다.”

- 작자 미상, 「전우치전」 -

43.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 ① 전우치는 대국의 황포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 ② 신하들은 임금의 꿈에서 선관과 선녀로 등장하고 있다.
- ③ 임금은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 ④ 황제가 내린 조서에는 전우치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 ⑤ 전우치는 임금보다 우월함을 과시하기 위해 재주를 뽐내고 있다.

44. 위 글을 <보기>와 같은 구조로 이해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임금이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하고자 하는 것은 (나)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곧바로 연결되고 있다.
- ③ (가)에서 전우치가 대국을 속인 이유가 (나)에서 비범한 행위의 나열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나)에서 바다에서 산으로 공간이 급작스럽게 바뀐 것은 작품의 비현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 ⑤ (가)에서 유보된 전우치에 대한 임금의 평가가 (나)를 근거로 (다)에서 확정되고 있다.

45. [A]의 발화 의도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경험을 꿰뚫어 보면서 상대방의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군.
- ② 상대방이 경험한 공포감을 자극하여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하는군.
- ③ 상대방이 경험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 마음을 떠려고 하는군.
- ④ 상대방이 경험한 일이 자신이 꾸민 일임을 일깨워 상대방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하는군.
- ⑤ 상대방이 경험한 일을 떠올리게 하여 그 일이 자신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려 하는군.

46. ㉠에서 임금이 처한 상황을 알맞게 표현한 것은? [1점]

- ① 백척간두(百尺竿頭) ② 풍비박산(風飛雹散)
- ③ 천재일우(千載一遇) ④ 고군분투(孤軍奮鬪)
- ⑤ 흥진비래(興盡悲來)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 보면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모여 있으면 경쟁이 치열해져 상품의 판매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가게들이 모여 있으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어 오히려 이익이다. 그렇다면 모여 있는 가게가 단독으로 있는 가게보다 어떻게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는 것일까?

상품에 대한 정보 없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정보를 바탕으로 상품을 구입하려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탐색하고, 이 정보를 통해 편익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편익이란 탐색 행위를 통해 같은 상품을싼 가격에 사거나, 같은 값에 질이 더 좋은 상품을 구입하여 얻은 이익을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를 탐색하는 행위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적정량의 정보 탐색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컴퓨터를 살 때, 1만 원의 비용으로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해서 처음에 구입하려고 했던 가격보다 3만 원 싸게 구입했다고 하자. 소비자는 1단위의 정보를 탐색하여 2만 원의 이익을 얻은 셈이다. 컴퓨터에 대해 정보가 전혀 없던 소비자가 정보를 처음 얻게 되었으므로 이때의 이익은 크다. 그런데 이 소비자가 또 1단위의 정보를 추가로 탐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라진다. 왜냐하면 정보를 더 얻을수록 상품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현재 정보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는데 드는 탐색 비용은 더 늘어나는데 반해, 그에 따르는 추가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할 때 비용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가하고 절약하는 돈은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더 이상의 정보 탐색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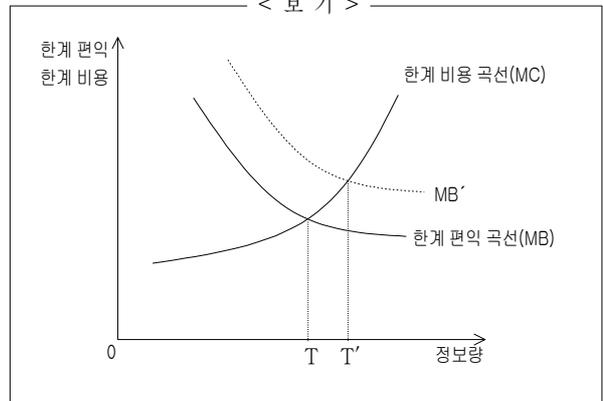
이렇게 정보 한 단위를 더 탐색하여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계 편익'이라고 하고, 이때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을 '한계 비용'이라 한다. 따라서 소비자의 적절한 정보 탐색 행위의 수준은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점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소비자는 정보 탐색 행위를 할 때 같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소나 방법을 찾으려 노력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같은 품목의 상품을 파는 가게가 모여 있는 곳이 같은 정보 탐색 비용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을 선호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정보를 얻으려는 소비자들이 몰리게 되어 시장과 백화점이 상품을 더 많이 팔 수 있는 것이다.

47. 위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례 분석을 통해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② 특정 현상과 관련된 사례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기존의 이론과 대비되는 사례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 ⑤ 사례를 바탕으로 특정 현상과 대비되는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4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그래프로 그렸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탐색 행위로 얻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은 정보량이 T일 때의 한계 편익보다 작다.
- ② T보다 적은 정보량을 지닌 소비자는 정보량이 T가 될 때까지 탐색 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 ③ 한계 편익 곡선 MB가 MB'로 이동하면 동일한 정보량으로 더 많은 한계 편익을 얻게 될 것이다.
- ④ 단독 가게를 이용하던 소비자가 백화점을 이용하게 되면 한계 비용 곡선 MC는 왼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 ⑤ 동일한 비용으로 더 가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면 한계 편익 곡선 MB는 오른쪽 위로 이동하게 된다.

4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편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 ② 정보 탐색을 계속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③ 정보가 상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④ 정보를 추가 탐색하면 정보 과잉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⑤ 정보 추가를 위한 비용이 추가 정보로 얻는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다.

50. 밑줄 친 부분 중, ㉡와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별 힘을 쓰지 않고서도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 ② 충동을 누른 힘이 서서히 고통으로 바뀌었다.
- ③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
- ④ 힘만 가지고는 장롱을 옮길 수 없다.
- ⑤ 선생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